

'다이어وم 밥차' 출발합니다

익산시, 나눔+곳간 운영... 결식 우려 이웃 무료 식사 제공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놓인 가구와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식사 제공을 위해 다이어움 밥차의 시동을 건다.

시는 23일 나눔+곳간의 새로운 사업인 '다이어움 밥차' 선포식을 가지고 무료급식을 통해 따뜻한 사랑 전달과 위기가구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현을 시장, 유재구 시의장을 비롯해 23개 협약기관과 협업단체장 등이 참석해 곳간 문이 열리는 날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나눔의 문을 활짝 열었다.

또한 봉어빵 아저씨로 잘 알려진 김남수씨의 직접 구운 따뜻한 봉어빵 나눔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의 성금 기탁으로 추운 날씨에도 훈훈한

운기를 더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도내 최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나눔곳간 운영을 시작해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기존의 나눔곳간을 확대 개편한 나눔+곳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다이어움 밥차 운영으로 위기가구 및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다이어움 밥차는 오늘 12시 첫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월 4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 공휴일과 한여름인 휴식기 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부승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시민, 단체, 기업의



자발적인 물품 및 후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밥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확성 부승종합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기업, 봉사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는 드림스타트와 이성당(대표 김현주)이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아동 500여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아동을 위한 생일축하 프로그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생일축하 · 정서안정 도모

군산시드림스타트 · 이성당, 생일축하케이크 후원 협약

군산시는 드림스타트와 이성당(대표 김현주)이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아동 500여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한 아동을 위한 생일축하 프로그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성당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2020년 백년가게로 선정됐으며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후원으로 주변의 귀감을 얻고 있다.

특히 이성당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생일을 맞이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생일축하케이크를 지원

하며 꾸준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아동이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 소중한 아동을 위한 생일축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건설 아동청소년과장은 "이성당의 도움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가족 간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성당처럼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기업의 다양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재건축 활성화로 노후 공동주택 정비

익산시, 노후 단지 단계적 추진

익산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익산지역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신동 철수아파트 285세대를 비롯해 3개 단지 1,488세대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리된 영등주공단지에는 조합원 분담까지 완료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는 일부에서 제기된 분양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고 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나 토지주택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

뢰해 해당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일반분양 세대를 모집할 경우 분양가 상한선에 준하는 검토와 별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적절한 분양가를 권고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진 절차는 △기본계획(안전진단)△정비구역인정(안전진단)△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공사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조합원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신고및일반분양△준공△조합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과 시에서 선정한 각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된 추정금액을 근거로 조합에서 산출한 분양금액으로 결정되며, 조합원 분양 완료 후 총회를 거쳐 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고를 한다.

정현을 시장은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고 노후 공동주택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노후 주거 환경 정비 및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이를 토대로 주택 수요·공급의 분석을 통한 적절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책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익산 유천 도서관' 준공

유천생태습지공원을 품은 익산 지역 유일의 생태특화도서관인 유천도서관이 드디어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시는 23일 관내 7번째 시립도서관인 유천도서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동산동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축하공연과 제막식, 라운딩 등의 행사를 가졌다.

유천도서관은 동산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총 사업비 82억원(국비 32.8억원, 시비 49.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202㎡,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 통합안내 데스크, 어린이자료실, 북스테이 등과 지상 2~3층에 종합자료실, 생태자료 및 테마자료 전시공간, 보존서고, 사무실 등이 마련되었다. 지상 4층에는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이 있으며, 옥상에는 하늘마당(생태학습장), 독서데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유천도서관은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건축물로, 인근에 위치한 유천생태습지공원과 연계해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되어 인근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서관과는 다르게 이용자 친화적 열린 도서관 공간을 조성하고 정보 제공은 물론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차별화 한 점도 돋보인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

익산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요 사업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운영속 시의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교유정 생활교육과장 청소년기관·단체 관계자, 청소년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익산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시작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인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토의했다.

2022년 주요사업은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익산시 청소년연합회 운영 △농촌지역 청소년활동지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사업 등이다.

또한 기타 안전으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 익산 유치 분위기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정서·행동에 어

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자립·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거주형 국립 치료·재활시설이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전라북도도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로 다른 지역보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형 청소년상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한약치유, 원예치유, 재활승가치유 등 지역자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시에 국립형 청소년상담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오후 2시 30분은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 의견을 계속 반영해 가며 청소년이 행복한 익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 신청·접수

군산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단, 접수시작 한 달 동안(3.15~4.15)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받고, 이후 접수종료시(4.18~5.31)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노후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 방지시설이 노후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받는다.

올해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예상되는 지원업체 수는 16개 정도이며,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한 후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063-454-340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